



■ **최익현씨** (인천지부 사무국장)…… 큰 사업을 이루어낸 보람에 웃음을 그칠 겨를이 없다는 그. 최국장님은 지금까지 자기 청사가 없어 알게 모르게 불편을 겪어야 했던 인천지부가 새 청사를 구입, 집없는 설움(?)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층은 무엇을 2층은 무엇을, 그리고 옥상은 휴식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그의 힘찬 얘기를 들으면서, 인천지부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항상 노력하는 그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다.

■ **김병기씨** (제주지부 사무국장)…… 평소 수석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瀛洲壽石會 회장직까지 맡고 있는 그가 이번



9월28일부터 10월2일까지 蘭石茶室에서 제18회 瀛洲壽石會 會員展을 개최해 관심 있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취미생활을 잊지 않는 그의 여유스러움이 존경스럽기 까지 하다.

■ **김정현씨**(본부 사업계장)…… 요즘 들어 유난히도 발걸음이 가벼워진 그의 뒷모습을 보고, 혹시 애인이라도 생겨 노총각 신세 면하게 되었냐고 물었다. 애인이 안생겨 섭섭하긴 하지만, 지난 9월12일 주요사업 추진 전략을

제안해 사업실적 거양에 도움을 준데 대해 표창과 포상을 받았다는 것.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춘 그에게, 아리따운 아가씨만 생긴다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이라

■ **최종삼씨**(본부 사업주임)…… 늘 선한(?) 거구를 자랑하던 그가 요즘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사연인즉, 얼마전부터 자꾸 배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 그동안 못 먹어서 부은 살이 빠지는 건 좋지만—정말 그럴까— 이런 사태가 계속 진행된다면 입은 웃이 모두 커져버리는 사태가 유발될 것이 아니냐며 한숨.

■ **윤영식씨**(본부 검사과장)…… 때 아닌 득남 소식에 놀라 달려간 기자에게, 여유있는 웃음으로, 자식 낳는데 무슨 때가 필요하냐며 한마디.

사실인즉, 처조카 조영환군(4세)을 집으로 데려와 키우고 있다는 그는 아이들은 언제봐도 역시 이쁘다며 자랑스러워 했다.

■ **이영강씨**(본부 사업계장)…… 그는 올해들어 좋은 일만 생긴다면서 싱글벙글해 주위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있다. 지난 5월23일에는 차남 재승이가 태어나더니, 8월30일에는 백일을 맞아 건강한 웃음을 아버지에게 선사했다고, 어디 그뿐이라? 집까지 사무실 근처로 옮겨 먼 출퇴근길에 고생하던 것까지 잊어버렸으니, 매일 아침 2시간의 시간을 출근길에 뿌리는 기자가 어찌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